

‘팔자’에서 ‘사자’로 태세 전환한 연기금… 이달 521억 순매수

삼바·현대차·S-Oil 등 호실적 종목 끌어 담아…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 영향

연기금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주로 1분기 호실적을 거둔 종목을 끌어 담았다. 국민연금이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모습은 과거가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현재 연기금은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521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2조8768억원을 팔아치운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연기금, 금융투자 등이 포함된 기관투자자의 거래 규모도 6조783억원 순매도에서 6765억원 순매수로 크게 늘었다.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의미한다. 증시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운용규

모는 2월말 기준 860조원에 이른다.

앞서 연기금은 국내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주가지수가 3100선에 갇힌 ‘박스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조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51일 연속 14조48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다. 연기금의 매물 폭탄으로 코스피지수는 이 기간에 8.8% 오르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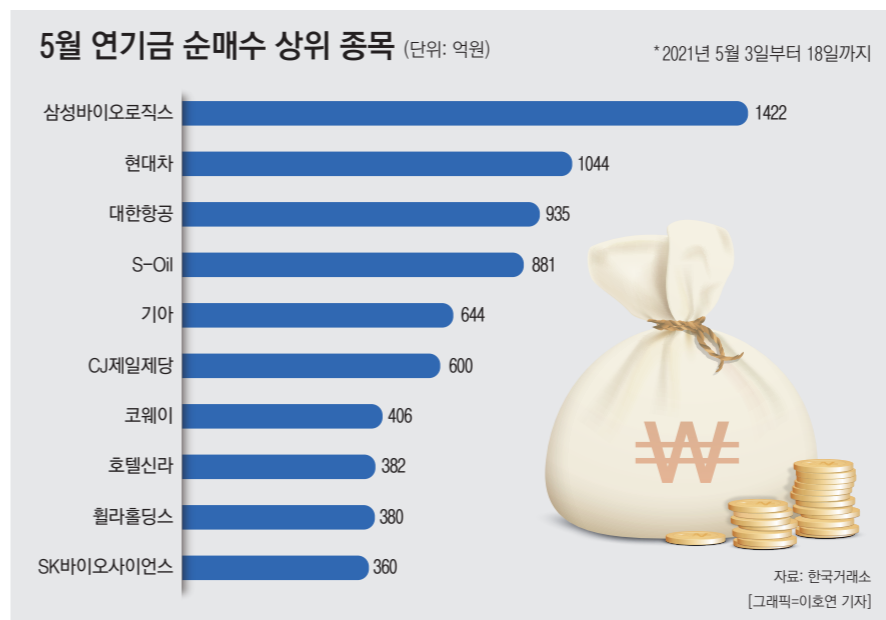
이달 들어 분위기는 달라졌다. 3월 24일 순매수를 시작으로 11일 거래일 중 6일 동안 순매수에 나섰다. △4일 315억원 △6일 -170억원 △7일 282억원 △10일 -54억원 △11일 -1210억원 △12일 1011억원 △13일 -963억원 △14일 1012억원 △17일 -3억원 △18일 276억원 등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 매도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투자 비중’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행보

다 ±1%p 높은 ±3%p로 정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투자비중 상한은 18.8%에서 19.8%로 올라갔다. SAA는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AA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계적 매도압박이 줄어들어 순매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기금은 이달 들어 1분기 실적에 우수한 종목들을 주로 사들였다.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1422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매출액 2608억원, 영업이익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각각 26%, 19% 올랐다. 이 때문인지 주가는 이달 들어 15.7% 상승해 18일 종가 기준 89만4000원을 기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3개 공장 모두 거의 풀가동되는 중인 가운데 3공장 생산 초기 제품들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분기마다 큰 폭으로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지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 수렴한 RFP(고객사 CMO 제안 요청)는 총 22개로 올해 1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당시 8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올해 하반기 4공장 조기 수주도 기대할 수 있어 항체치료제 CMO 업체 역시 좋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연기금은 △현대차 1044억원 △대한항공 935억원 △S-Oil 881억원 △기

아 644억원 △CJ제일제당 600억원 △코웨이 406억원 △호텔신라 382억원 △힐라홀딩스 38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360억원 등도 순매수했다. 현대차는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1분기 매출액 27조3909억원, 영업이익 1조6566억원을 거뒀다.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다. 주가는 이달 들어

21만2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9.0% 올랐다.

S-Oil은 1분기에 629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작년 1분기 1조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휘발유, 경유 등 주력 제품의 마진(스프레드)이 커진 영향이다. 1분기 휘발유 판매 마진은 배럴당 5.1달러로 전분기(3달러) 대비 58% 상승했다. 경유 판매마진도 4.3달러에서 5.7달러로 올랐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S-Oil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8922억원으로 2011년 정유주 골든에이지 시기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올해 상반기 대규모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보다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기금은 이달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한 반도체, 인터넷 종목들을 대거 팔아치웠다. △삼성전자 -4437억원 △SK하이닉스 -1286억원 △NAVER -1094억원 △카카오 -895억원 △삼성전기 -811억원 등이다.

윤승준 기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곳 직권말소

금감원, 영업의사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 미이수 업자 퇴출… 영업 땀 형사처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곳의 부적격 업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스카이데일리DB

19일 금감원은 작년 10월말 기준 전체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제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을 계속 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2250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2017년(1596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

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경우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더링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피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준 기자

국민연금, ‘ESG의 새로운 길’ 발간… 내일 포럼 개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에 맞춰 ‘ESG플러스 포럼’을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개념부터 역사, 최근 동향, 국민연금 ESG 투자 전략과 방향 등을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

ESG 관련 이론과 사례를 망라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ESG 종합지침서’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과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국민연금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책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책 발간에 맞춰 금융권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ESG 투자에 관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한국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에 맞춰 포럼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따른 ESG 투자 추진 방향’ 발표, 국내 자산운용사와 기업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는 ESG 주요 이슈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는 장기수익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국민 노후 자산의 수호자라는 공단의 본질적 사명에 부합한다”며 “책임투자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ESG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우리나라의 ‘ESG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등 ‘국민연금 ESG플러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토크 콘서트에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좌장으로 한수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창구 신한자산운용 대표, 나석권 SK 사회투자지원연구원장, 류영재 서스텐넌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한원석 기자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성공하는 기업의 공식, KMAC에서 해답을 찾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의 파트너,
KMAC는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 경영컨설팅사입니다.

기업가치혁신 | 공공혁신 | 진단평가 | 리서치 | 디지털·데이터 | 에너지·환경 | ESG | 대학사업 | 스마트교육 | 글로벌연수 | 미디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 TEL : 02-3786-0114 | www.kmac.co.kr